암면시장 수요부진 지속

건축 경기 둔화로 7%감소 … 산업용은 증가

국내 암면시장이 최근 건축경기의 둔화로 수요량이 7% 감소하고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등 불황을 겪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2년까지 대단위 아파트건설 등 건축경기가 이어졌으나 93년 들어 아파트건설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단열재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면 수요는 5만5000톤으로 92년 6만톤에 비해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금강이 3만8000톤으로 92년 4만톤에 비해 5% 감소했으며, 벽산은 1만8000톤으로 92년 2만톤에 비해 10%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기업의 생산규모는 금강이 4만톤, 벽산이 2만6000톤으로 수요량 5만6000톤에 비해 18%에 해당하는 1만여톤이 과잉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암면은 제품의 특성상 부피에 비해 실제 양이 적어 수출은 2천톤 내외의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수요의 증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가격은 건축용과 산업용 등 제품에 따라 다른데, 가장 가격이 싼 건축물내외벽 천정보온용의 경우 KG당 480원 내외이며, 철골내화피복 등에 사용되는 스프레이는 350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업용 단열재의 경우 700원, 파이프커버용은 850~900원으로 나타났다.
암면은 건축용의 경우 단열재로 사용되며 산업용은 대부분 650도 이하의 고온단열재로 사용되고 있다.
생산기업들은 최근 건축규제완화와 허용면적 확대 등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건축 불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암면시장의 공급과잉과 건축경기의 부진 등으로 수요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규제완화의 효과가 나타날 94년 하반기부터 약간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경기가 조금씩 호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산업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화학저널 1994/6/6>